

2007년 현충일 특별집회 표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진리 안에서 행하고,
주님의 회복을 실현하며,
죽음과 분열을 멀리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의 진리를 알고,
진리의 절대성을 지키며,
진리의 기둥과 기반인 교회를 위해
진리로 조성되어야 한다.

하나의 터는 우리의 존재에 적용되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며,
진정한 하나의 본질은 생명과 빛이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긍휼을 받아,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도달하고,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활력 그룹들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사람들을 목양함으로,
주님의 회복 안에서 새로운 부흥을 가져와 시대를 전환하는
그분의 이기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현충일 특별 집회 개요
2007년 5월 25일-28일

전체 주제: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현재의 필요를 돌봄

메시지 1

하나님의 경륜의 진리 안에서 행하고
주님의 회복을 실현하며
죽음과 분열을 멀리함

성경: 행 26:16-19, 딤펢전 1:3-6, 6:3-4, 고후 11:2-3, 롬 16:17, 딤펢후 4:22

- I.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과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에 관한 하늘에 속한 이상의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한다. 이러한 이상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매일 새로워짐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과 일과 활동을 통제하는 이상이 되어야 한다—잠 29:18상, 행 26:16-19, 요일 1:7, 요삼 3-4.
- A.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으로 분배하시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산출하고 조성하고 건축하시려는 그분의 계획이다—딤펢전 1:3-6, 6:3-4, 고후 11:2-3, 딤펢 1:9, 골 2:19.
- B.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 곧 하나님의 경륜의 전략적이고 중심적인 지점은, 그 영으로서 우리의 영, 우리의 연합된 영 안에 내주하시는 주관적인 그리스도이다—고후 3:17, 딤펢후 4:22, 롬 8:16, 고전 6:17.
-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사람의 영 안에 계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신성한 영께 한정되고 심지어 그 분께만 집중되어, 신성한 경륜의 표적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딤펢전 1:6, 말 2:15-16, 롬 1:9, 8:4, 6, 갈 5:25, 빌 3:3, 고후 2:13.
 -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의 '청사진'에서 사람은 온 우주의 중심이며, 사람의 중심은 사람의 영이다—창 2:7, 잠 20:27.
 - 하늘은 땅을 위해 있고, 땅은 사람을 위해 있으며, 사람은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나님에 의해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스 12:1, 요 4:24.
 - 하나님께서 그 영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이 없다면, 온 우주는 공허하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전 1:2, 3:11, 욥 32:8, 참조 롬 9:21, 23, 고후 4:7.
 -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살고 우리의 영을 훈련할 때,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다. 우리의 혼 안에 사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원칙 안에 사는 것이다—스 4:6, 12:1, 고전 15:45하, 6:17, 요일 2:18-19.
 - 주님의 회복은 우리의 영 안에 있는 하나의 회복이다.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은 단순함과 하나의 장소인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것은 혼돈과 분열의 장소인 바벨론에 있는 것이다—요 4:24, 엠 2:22, 롬 1:9, 딤펢후 1:6-7.
 - 우리의 영은 한 새사람을 위해 인종을 삼켜 버리는 은혜의 '나라'이지만, 우리의 생각은 다툼의 '나라'이다.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을 그 영으로 누리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를 갖는 것이

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 교회의 타락이 생긴다—딤후 4:22, 갈 6:18, 5:15, 골 3:10-11.

- C.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실재이다—엡 1:22-23, 계 21:2-3, 9-10.
 - 1. 지방 교회들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적인 표현이 없고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가 있을 수 없다—계 1:10-13, 2:7.
 - 2.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 여기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노선에서 벗어난 것이다—엡 4:1-6, 11-16.
 - 3. 우리는 반드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섞이는 생활 안으로 모든 성도를 이끌어야 한다—고전 12:24, 롬 16:1-20.
 - 4. 이 시대에 있는 주님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협력함으로써 오늘날의 예루살렘(교회 생활) 안에 있는 오늘날의 시온인 이기는 이들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함으로써 새 예루살렘을 완결해야 한다—계 3:21-22, 14:1-5, 샅 5:15-16, 31.
- D.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유일하고도 건강한 가르침, 곧 사도들의 가르침과 다르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소중한 인격을 진정으로 감상하고 사랑하고 누리는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딤후 1:3-4, 행 2:42, 고후 11:2-3.
- E. 오늘날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의 이상, 곧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이상이 있기 때문이다—행 1:14, 고전 1:9-10, 롬 32:39.

II. 하나님의 경륜은 사도들을 통해 밝혀졌지만,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 의해 회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A. ‘회복’과 ‘경륜’이라는 단어는 한 대상을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본 것이다. 하나님께는 그것이 경륜의 문제이고, 우리에게 그것은 회복의 문제이다—딤후 1:4, 엡 1:10, 3:9.
- B. ‘회복’이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 곧 하나님께서 처음에 정하신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마 19:8.
- C. 하나님의 대다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회복하신다는 분명하고 견고한 원칙이 있다. 주님의 회복은 항상 대다수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 곧 남아 있는 이기는 이들과 함께한다—왕하 22:8, 스 1:3-11, 느 2:11, 17, 계 3:21, 18:4.
- D. 우리의 이상은 현재의 상황이나 전통적인 실행에 의해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회복의 현재의 전진에 따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와 표준에 의해 지배받아야 한다.
 - 1. 주님의 회복은 우리의 중심과 실재와 생명과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다—골 1:17하, 18하, 계 2:4, 7, 17, 3:20, 시 80:1, 15, 17-19.
 - 2. 주님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회복하는 것이다—요 17:11, 21-23, 엡 4:3-4상, 계 1:11.
 - 3. 주님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다—엡 4:15-16, 고전 14:4하, 26, 31.
- E.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가져야 하고, 이 이상에 의해 지배받고 통제받고 지시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여기 있기 때문이다—행 26:18-19, 잠 29:18상.

III.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주님의 회복을 실현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분열과 죽음을 멀리해야 한

다.

- A.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멀리하고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삼켜져야 한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생명의 본성 안에 있고, 생명의 내용을 가지며, 생명의 흐름과 공급 안에 있어야 한다—민 6:1-9, 레 5:2, 고후 5:4, 요 7:38, 요일 5:16상.
- B. 우리는 반드시 모든 종류의 분열을 거절하고(고전 1:10), 모든 종류의 가르침의 풍조와 영적인 죽음의 확산에 맞서며(엡 4:14, 딤후 2:16-17),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가르침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들을 주의하여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야 한다(롬 16:17, 딤후 3:10).
- C. 레위기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우리가 첫째로 처리해야 할 것이 듣는 문제임을 제시한다. 우리의 움직임(발)과 일(손)은 항상 우리가 듣는 것을 따라간다—레 8:23-24, 14:14-17.
 - 1. 우리가 듣는 것에 주의하지 않고 부정적인 것을 듣는 데 우리의 귀를 내준다면, 우리의 행위와 일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 2. 어떤 교회든지 부정적인 것들을 듣기를 중단한다면 그 교회는 매우 건강하고 살아 있을 것이다. 가장 약하고 죽어 있는 교회는 비평과 한담과 시비가 가득한 교회이다.
 - 3. 우리는 종종 정결치 않은 것들, 곧 건강하지 않고 전염성이 있는 것들을 듣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귀를 씻어야 한다. 피로 씻은 후에 우리는 그 영의 기름 바름을 누릴 것이다.
 - 4. 긍정적인 것을 듣는 것은 부정적인 것들을 듣는 데서 우리를 구출할 것이다.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말에는 조금도 우리의 귀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계 2:7, 요 10:3-5, 16, 27, 아 2:8, 14.
- D. 소제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소제인 교회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모든 누룩(인도 직분에 대한 야심)과 꿀(천연적인 애정)에서 정화되어야 한다—레 2:11.
 - 1. 야심과 천연적인 애정은 함께한다. 야심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갈망하는 것을 얻도록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할 것이고, 자신의 야심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수로 여길 것이다—요삼 9.
 - 2. 우리는 어떤 사람 때문에 주님의 회복의 길을 취하지도 말고 떠나지도 말아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회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행 26:19, 딤후 1:15, 2:1-15.
- E. 교회생활을 위해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 인지를 주의해야 한다. 레위기 11장에서 모든 동물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상징하고, 먹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을 상징한다—참조 행 10:9하-14, 27-29.
 - 1. 먹는 것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을 접촉하여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 결국 그것을 우리의 내적 조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접촉한 것은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무엇이든 우리를 재조성하여 현재의 우리의 존재와 다른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 2. “미혹되지 마십시오. 악한 사람과 사귀는 것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킵니다.”—고전15:33.
 - 3.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잠 13:20.
 - 4. “속되고 헛된 말을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러한 말은 사람을 경건하지 않은 데로 더욱더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 후메내오와 밀레도가 있습니다. ...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십시오.”—딤후 2:16-18, 22.